

오피니언

월/요/광/장

양성우



벌써 세모다. 어느 사이 한 해가 번개처럼 지나고 버리고 말았다. 정말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인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시간을 되돌리지 못한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더욱이 짧은 날의 황금 같은 시간들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서 잠깐 동안 햇눈을 파는 틈에 이미 저 멀리서 손짓하며 안개처럼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채우고 연마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채우고 연마의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바로 독서다.

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흔히들 책을 음식에 비유하면서, 독서에 있어서 먼저 올바른 '책 고르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무슨 음식을 먹어야 좋은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무슨 책을 읽어야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것처럼, 책

인데, 양식을 고르는 일을 어찌 못 고르듯이 해야 되겠는가. 사람이 먹는 음식도 유행에 따라 고르는데, 책 고르기에 유행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달걀이 많은 시간들이 쏟아져 나오는 서점가에서, 텔레비전에 역사드라마가 뜨면 그에 관련된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행다큐멘터리가 뜨면 세계각국 여행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과 같은 책의 유행을 무조건 따라가는 식의 책 고르기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와는 달리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 뒤에 고르고, 이어서 각 분야의 수준 있는 전문

이 앞장서서 책을 읽는 부모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부모들 중에는 자녀들 앞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독서에는 아예 관심마저 갖지 않음으로써, 자녀들도 책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인터넷과 게임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게임의 세계관 '호기심과 재미'만의 세계가 아닌가. 거기에 습관이 들어서 수렴에 빠진다면 정신적인 피폐와 함께 정서의 파괴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세상의 낙오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런 무서운 결과를 미리 피하는 방법도 역시 부모가 책 읽기의 모범을 보이는 것뿐이다. 부모가 손에 책을 들고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일찍이 독서의 습관을 가지게 되며, 부지런히 책을 많이 읽어서 '지혜의 공간'을 스스로 채우고, 결국에는 뜻을 이루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상식이 아닌가.

요즘 거둬되는 연휴에 무덤 아래 눈이 내리고 밭도 갈아서 책 읽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무슨 일인간 한 주간만 거듭하면 끝이 난다.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가족이며, 특히 어린 자녀들이다. 예를 들자면, 책을 읽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어찌 열심히 책을 읽겠는가. 그렇지만 책을 열심히 읽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대부분이 열심히 책을 읽는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자녀를 달가 가는 것이므로, 그런 까닭으로 자녀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자신

책 읽는 광주 만들기

을 잘못 골라서 읽을 경우에는 마음에 독이 되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그래서 재미 위주의 책을 술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저 달콤하다고 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몸에 해롭듯이, 읽기에 재미있는 책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책은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책을 고를 때는 남을 따라하는 책 고르기를 경계해야 한다. '남이 장에 가면 나도 간다.'라는 식의 남 따라하기가 바로 유행이다. 특히 의상패션에서 그런 현상이 심한데, 심지어 책 고르기에 까지 웃을 고르듯이 유행이 있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책은 마음의 양식

가나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기관 등에서 권하는 책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책을 골라서 꾸준히 읽는 습관을 기른다면, 제 자신은 물론이요, 주변에까지 무척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물론이다.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가족이며, 특히 어린 자녀들이다. 예를 들자면, 책을 읽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어찌 열심히 책을 읽겠는가. 그렇지만 책을 열심히 읽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대부분이 열심히 책을 읽는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자녀를 달가 가는 것이므로, 그런 까닭으로 자녀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자신

(시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민주 '시민 배심원제' 개혁공천 이뤄지나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 문가와 일반시민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을 통해 입후보자를 최종 선정하는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기존 공천 틀을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도입될 경우 공천을 통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시민공천 배심원제는 각계 인사로 이뤄진 전문가 그룹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공천심사위가 1차로 압축한 후보군을 상대로 심층토론을 거쳐 후보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뽑게 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조직이나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존 '일반국민+당원 경선' 제도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려내자는 데 있다고 한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의 공천은 실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다.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광주·전남보다 더더군다나 2006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22명 가운데 무려 8명이 뇌물 수수나 선거법 위반으로 입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시의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명이 중도 하차했다. 텃밭에서의 이 같은 무더기 중도탈락은 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됐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냐의 여부는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개혁공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시민배심원제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발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특정 계파나 지역 인물을 배제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시민배심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공정한 선정 기준 마련 등 정밀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대란은 국가적 재앙이다

청년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5~39세 청년취업자가 작년보다 25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전 환란 이후 가장 큰 일자리 감소 폭이다.

문제는 당분간 청년층 일자리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경기 지표가 호전되더라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대학마다 '화학년' '6학년생'이 늘어나고 '깡겨투척'이라는 신조어가 보통명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대졸자 상당수가 사회 진출의 꿈과 성취의 기회를 처음부터 봉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역동적인 시기에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도 모자랄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취업이 되지 않

면 결혼시기도 늦어지기 마련이다. 청년실업은 곧 저출산으로 이어져 장기 성장동력마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백약이 무효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인턴제나 지식경제부의 1인 창업기업 육성, 노동부의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사업 정책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예산부족으로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서비스업 부문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디자인과 마케팅 등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청년 고용 문제는 경기 상황뿐 아니라 힘든 직업에 대한 회피 경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은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 구직자들도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無等鼓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할 나이를 취학(就學)연령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법상 만 6세가 이에 해당된다.

만 6세 취학은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가 42개국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분석한 결과 만 6세가 27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만 7세인 곳은 10개국이었다. 반면 만 5세는 영국을 포함해 영연방 6개국이고, 북아일랜드는 유일하게 만 4세였다.

정부가 최근 취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밝힌 취지다. 요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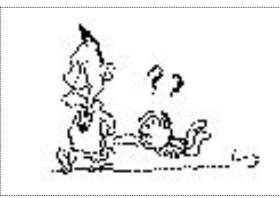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국가 재원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 교육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기 취학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상당수 교육전문가는 취학연령 단축이 늘어나 경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의 성장 발달과 맞지 않는 것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 속출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한다. 학부모들도 1년 앞당겨 학교에 보내도 유치원비만 안들 뿐이지 학원비는 똑같이 들어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조기 취학 아동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취학을 유예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남들처럼 만 6세 적령에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이 2000년 3.2%에서 2005년 6.8%, 2008년 9.4%로 되려 상승하는 추세다.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따돌림을 우려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다. 취학 시기를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조기취학

법조칼럼

배진호



“따라라라~ 밧고음 광주의 법원 가족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모두 안녕하셨는지요? 화요일 아침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배진호 판사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8시30분이 되면 광주 법원 안팎을 찌렁찌렁하게 울리는 맑은 목소리가 있다. 프로그램 명은 자칭 '배진호 DJ의 음악캠프'.

또 가끔씩 애청자들의 추천 곡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 장르를 알게 되는 맛은 두 배의 기쁨이라고 하겠다. 둘째로는 '꾸준함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라는 점이다. “겨우 1주일에 하루 인데...”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정 사안이 대외적인 약속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방송 전날 아무리 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다음날 방송의 음악을 선곡해야 하고, 술자리가 길어지면 남몰래 방송 멘트를 중얼중얼하고 있다. 누가 보면

'칭찬의 위력' 알게 해준 법원 방송 진행

래는 한 회당 대략 5곡 내외다. 방송 스태프는 연출, 작가, 선곡 및 DJ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 필자와 음향 조정 등 기술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미녀' 실무관 한 명이 고작이다. 물론 그녀는 청취자들의 반응을 몰래 알아보는 더 큰 역할도 맡고 있다.

이걸 직업병이라 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내 방송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어찌가 무거운 일인 것 같다. 하긴, 그 유명한 철수 '중진'도 20년 동안 제대로 저녁 약속도 못 잡았다고 하니.

마지막으로는 칭찬의 위력이다. 아침 방송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칭찬 릴레이' 시간이 되면 매주 1명씩 피리에 꼬리를 물고 칭찬이 계속 된다.

칭찬의 사유는 다양하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이것저것 많이 도와 주었다'는 사연부터 '친분은 없지만 복도에서 만나면 항상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한 것이 기억에 남았다'는 사연까지 매주 다양한 사연들이 방송을 통해 소개된다.

하지만, 아무리 사연이 다양해도 공통점은 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즐거워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주변에 나누어주려 노력한다는 점이다.

칭찬은 즐거움을 낳고, 즐거움은 결국 또 다른 칭찬을 낳는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 힘든 이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는 기본 좋은 말 한마디를 건네 보는 건 어떨까.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고

박인환



기축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교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전남도의회를 대표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 전남도의회는 지난 23일을 기해 2009년도 120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기 마지막 날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애로를 덜어드리

리에서 공공비축미 23만 톤을 추가매입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점, 그리고 2010년 전라남도 전체예산 5조 2천억원 중 농업분야 예산이 9천510억원(18.3%)을 차지하고 있는 결과 비교해 볼 때 회의가 그동안 농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문제는 매년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나 이해해 주십시오. 그동안 전남도는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은 의원총회의 결의와 지역 농민단체 등이 요구한 바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마지막 회기의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470억원만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께서 500억원이 모두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셨고 이 과정에서 다소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는 2001년 207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440억원, 올해에는 470억원의 비 재배능가 경영안정대책비를 계속 증액 의결해 왔습니다. 타시도는 2005년부터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0월 2009년 타 시도 비 경영안정대책비 확보상황을 살펴보면 전북 100억원, 충북 103억원, 충남 323억원, 경북 235억원, 경남 2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난 11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이낙연 위원장을 면담한 자

전남도의 지난해 1인당 소득이 전국 최저 수준인 현실을 직시할 때 앞으로 전남도와 도의회는 취약한 살림살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농업분야를 포함 각 분야의 발전 동력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총력을 경주하여 정부에 강력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바람은 구호나 투쟁이 아닌 도민이 잘 사는 방법을 찾아주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감액된 비 경영안정대책자금 12억원의 내년 추경 예산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4대 감에 집중된 정부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전남도민들께서는 더 이상 가슴속에 응어리와 함승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후조목 도의회는 앞으로 도민을 위해 더욱 분발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인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전남도의회의장)

해파리 이동경로 차단해 피해 줄여야

얼마 전 일문서 발견된 초대형 해파리 때문에 떠들썩했다.

남해안에 해파리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난류를 타고 많은 해파리가 남해안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를 줄이려면 이동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 대량 번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파리 개체 수가 급증한 것은 바다 수온 상승과 염분도 하락 등 번식과 성장에 유리

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높아지고 있고 염분도 떨어지는 현상이 당장 고쳐지지 않는 한 해파리의 출몰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이동경로에서 차단하는 것이다.

해파리 피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서 3국이 함께 공동 노력하는 외교적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홍예진·광주시 동구 대인동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 부 2200-672 문화체육부 2200-661 정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 부 2200-641 체육 팀 2200-663 사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